

강화연습 (해설지)

수능 비문학 강화를 위한 연습 (이회차)

차례

아도르노 미학 - 해설지	3
[표 A] 대중 예술 VS 전위 예술 (아도르노의 관점)	3
해설	3
[표 B] 동일성 VS 비동일성	3
해설	3
[표 C]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 VS 진정한 예술	4
해설	4
[표 D]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본 세잔 VS 미메시스로 본 세잔	4
해설	4
[표 E] 아도르노 미학의 긍정적 측면 VS 한계	5
해설	5
[표 F] 아도르노 VS 베냐민의 예술관 비교	5
해설	5
[표 G] (가)와 (나)의 서술 방식 비교	6
해설	6
핵심 개념 정리	6
전체 논리 구조 정리	6
(가)의 논리 흐름	6
(나)의 논리 흐름	6
두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역설	6

아도르노 미학 - 해설지

[표 A] 대중 예술 VS 전위 예술 (아도르노의 관점)

구분	대중 예술	전위 예술
생산 방식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창작
사회적 기능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
감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감상 능력을 표준화시키고 개성을 소멸시킴	불쾌함과 낯설음 통해 동일화의 폭력을 체험하게 함
예술의 형태	아름답고 대중이 원하는 상품의 형태	추하고 불쾌한 비정형의 형태

해설

- (가)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도출되는 대립
- 대중 예술이 단순히 '질 낮은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 면에서 문제적임을 주목할 것
- '표준화'라는 키워드가 핵심: 예술뿐 아니라 감상자의 능력과 개성까지 표준화시킨다는 점이 아도르노 비판의 핵심
- 전위 예술이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이유: 아름다움 자체가 이미 동일화된 가치 체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표 B] 동일성 VS 비동일성

구분	동일성	비동일성
개념 정의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
예술에서의 표현 방식	표준화된 형식, 아름다운 상품의 형태	비정형화된 형식, 추하고 불쾌한 형태
자본주의 사회와의 관계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환원하는 자본주의 논리와 일치	교환 가치로의 환원을 거부하며 자본주의에 저항
아도르노의 평가	예술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속성	예술이 반드시 지녀야 할 속성

해설

- (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쌍
- 동일성 = 자본주의 = 대중 예술 = 표준화로 연결되는 사물을 파악할 것
- 비동일성 = 저항 = 전위 예술 = 비정형성으로 연결되는 사물을 함께 파악할 것
- 중요한 역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조차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이 됨 즉 비동일성은 간접적으로만 드러나야 함

[표 C]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 VS 진정한 예술

구분	대중 예술	진정한 예술
목적	이윤 극대화, 상품으로서의 교환 가치 실현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에게 체험하게 함
형식	창작 구성부터 표현까지 규격화·표준화	일정한 형식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
감상자 체험	감상 능력의 표준화, 개성 소멸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직접 체험
사회 부조리와의 관계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기제	부조리를 드러내고 저항하는 매개
개인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킴	동일화에 저항하며 개별성 유지

해설

- 표 A와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술의 목적과 기능' 측면에 집중
- '전락' ㉓이라는 단어에 주목: 원래의 가치에서 떨어져 내려간다는 의미로, 예술뿐 아니라 개인 정체성도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논리의 흐름을 파악할 것
- 진정한 예술의 조건이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의 문제임을 기억할 것

[표 D]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본 세잔 VS 미메시스로 본 세잔

구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기	미메시스로 읽기
작품의 성격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에 불과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재현한 미메시스
표현하는 것	표면적 아름다움,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	자연의 생명력, 농부의 삶, 예술가의 사유 등 세계의 참모습
예술가의 역할	아름다운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세계를 응시하고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하게 구현하는 주체
감상자의 체험	아름다운 가상을 소비하는 수동적 체험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세계의 참모습을 체험

해설

- (나)의 핵심 논점: 아도르노의 미학이 미메시스를 부정한다는 것을 세잔의 사례로 보여줌
- 미메시스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할 것: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
- 세잔의 사과 그림이 단순한 사과 묘사가 아니라 예술가의 사유와 세계관을 담은 것이라는 점이 미메시스적 독해의 핵심
- '유리' ㉓: 사회의 본질에서 분리·단절되어 있다는 의미, 아도르노적 관점에서는 부정적 평가

[표 E] 아도르노 미학의 긍정적 측면 VS 한계

구분	긍정적 측면	한계
예술의 자율성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 추구	전위 예술만을 진정한 예술로 한정하여 자율성 범위 축소
사회와의 관계	예술이 사회적인 동시에 사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균형적 시각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만 국한시킴
예술의 범위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 제공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 다양한 예술의 가치 발견 기회 박탈
미메시스와의 관계	예술이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메시스와 공동점 존재	미적 체험을 비경험성 체험으로만 한정하여 미메시스를 부정
동일화 문제	동일화의 폭력을 예리하게 비판	전위 예술로 예술을 동일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짐(㉠)

해설

- (나)의 전체 논지가 응축된 표: 아도르노를 인정하면서도 비판하는 구조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 역설: 동일화를 비판하는 아도르노 자신이 전위 예술로 예술을 동일화하고 있다는 자기모순
- ‘박탈’ (㉡):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기회를 강제로 빼앗는다는 강한 표현임에 주목
- 이 표는 (나) 전체의 논리 전개 순서(긍정 → 비판)를 그대로 반영

[표 F] 아도르노 VS 베냐민의 예술관 비교

구분	아도르노	베냐민
진정한 예술의 조건	동일화에 저항하는 비동일성, 비경험성을 갖춘 전위 예술	특정 조건 없이 어떤 예술에서도 새로운 예술 정신 발견 가능
대중 예술에 대한 입장	표준화된 상품, 부조리를 은폐하는 기제로 부정적 평가	대중 예술에서도 예술적 가치와 사회 비판 기능 인정 가능
예술 가치의 발견 가능성	전위 예술에서만 진정한 미적 가치 발견 가능	실수로 찍힌 사진처럼 주관조차 없는 것에서도 예술 정신 발견 가능
예술의 범위	극도로 좁음 (전위 예술로 한정)	넓고 개방적 (어떤 예술에서도 가치 발견 가능)

해설

- 베냐민은 (나)에서 아도르노의 한계를 지적하는 근거로 등장
- ‘발견’ (㉢): 예술 가치는 장르나 형식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라는 함의
- 베냐민의 사례(실수로 찍힌 사진)가 극단적 예시인 이유: 작가의 주관조차 없는 최소한의 조건에서도 예술 정신이 있다면, 대중 예술에서도 당연히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함

[표 4] (가)와 (나)의 서술 방식 비교

구분	(가)	(나)
주된 서술 방식	아도르노의 이론을 설명·소개하는 방식	아도르노 이론을 긍정한 뒤 비판하는 방식
아도르노 미학에 대한 태도	중립적 소개 및 논리 전개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시각을 병렬 제시
핵심 개념	동일성·비동일성, 문화 산입, 전위 예술	미메시스, 아름다운 가상, 예술의 자율성
예시로 든 예술가	쇤베르크(음악)	세잔(미술), 베냐민(사진·대중 예술)

해설

- (가)는 아도르노의 논리를 내부에서 충실히 설명하고, (나)는 아도르노를 외부에서 평가하고 비판
- (나)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긍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중요: 완전한 부정이 아닌 한계 지적
- 두 지문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개념(예술의 사회적 기능, 체험 등)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비교하며 읽을 것

핵심 개념 정리

개념	뜻풀이
동일성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 자본주의·대중 예술과 연결됨
비동일성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 아도르노가 예술이 지켜야 한다고 본 핵심 속성
문화 산입	이윤 극대화를 위해 예술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양산하는 자본주의적 체계
전위 예술	비정형화된 형식으로 동일화에 저항하는 예술. 쇤베르크 음악이 대표적 사례
미메시스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
아름다운 가상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채 표면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 아도르노적 관점에서 세잔 작품에 대한 평가
응집력	(앞선 쇤베르크 지문 연계)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으로, 유사성의 반복을 통해 실현됨

전체 논리 구조 정리

(가)의 논리 흐름

대중 예술 비판 → 동일성·비동일성 개념 정의 → 전위 예술 옹호 → 미학의 사회적 역할 제시

(나)의 논리 흐름

아도르노 미학 긍정 → 세잔 사례로 미메시스 부정 문제 제기 → 예술 범위 축소 비판 → 베냐민으로 반론 보강

두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역설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는 아도르노가, 전위 예술만을 진정한 예술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예술을 동일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이것이 (나)가 아도르노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핵심이다.